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07호 [루계 제26081호] 주제 107 (2018)년 7월 26일 (목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송도원종합식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송도원종합식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이인 한광상동지, 조용원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현지에서 조선로동당 강원도위원회 위원장 박정남동지와 공장

의 일꾼들이 맞이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각 도들에 종합적인 식료공장을 하나씩 소개실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공장의 잘 건설하여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할데 대하여 주신 간곡한 교시에 따라 2010년 1월에 조업한 송도원종합식료공장에서는 지난 8년간 생산능력을 무단히 장성시켜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150여가지의 맛좋은 당과류와 식료 가공품들을 생산함으로써 전국적으로도 손꼽히는 식료가공기지로 전변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언



인민들은 엄격한 검열관, 심사관이며 인민들의 평가속에 제품의 끊임없는 질적비약을 이룩할수 있는 열의가 있다고 하시면서 인민들의 수요를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인민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새 제품개발사업에 힘을 넣어 송도원종합식료공장에서 생산한 식료품들이 인민들이 항상 즐겨 찾는 제품,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하는 제품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제품의 가치수가 늘어나는데 맞게 보관조건이 각 이한 식료제품들에 대한 품질검사, 감독사업을 엄격하고도 정확히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특히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료품과 의약품인 경우 품질과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담보하기 위한 제품검시제도를 강화하며 검시방법과 수단을 개선하고 현대화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소개실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공장의 여러 생산공정들을 돌아보시면서 기술 장비상태와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식료가 공설비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작업장에서 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며 폭포처럼 쉬임 없이 쏟아지는 갖가지 식료품들을 보시며 생산공정의 현대화와 제품의 질제고를 위하여 이악하게 투쟁함으로써 해마다 계획

을 넘쳐 수행하고 인민들속에서 수요가 높고 좋은 평가를 받는 제품들을 팽팡 생산 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식료품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면서 가치수가 정말 많다고, 별의 별것이 다 있다고 하시며 포장도 다양하고 수준높게 잘하였다고, 최근에 식료공업 부문에서 제품포장과 상표도안수준이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송도원 종합식료공장의 제품들이 도적인 범위를 벗어나 전국각지로 퍼져가고 중앙의 식료

공장제품 못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있는데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전국적인 식료공장들사이의 제품경쟁을 활발히 벌려 따라배우고 따라앞서기 위한 투쟁열풍 속에 생산적양양을 일으키고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송도원 종합식료공장의 제품들이 도적인 범위를 벗어나 전국각지로 퍼져가고 중앙의 식료 공장제품 못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있는데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전국적인 식료공장들사이의 제품경쟁을 활발히 벌려 따라배우고 따라앞서기 위한 투쟁열풍 속에 생산적양양을 일으키고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2 면 으 로 계 속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송도원종합식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 1 면 에서 계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앞으로 공장에서 모든 생산공정들을 보다 완벽하게 자동화, 무인화, 무균화하기 위한 현대화를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우리의 기술력량과 우리의 자재, 설비에 의거하여 진행함으로써 공장을 국산화, 주체화된 생산기지로 꾸려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를

위한 전망목표를 정확히 세우고 완강하게 실현시켜나갈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신속있게 짜고들어 종업원들을 지식근로자로 준비시켜 생산공정의 기술개진과 설비현대화에서 한몫하도록 하며 새로운 기술혁신안, 기발한 착상들이 생산자대중속에서 많이 나오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 각 도마다 품돌여 꾸려주신 종합식료공장들중에서 송도원종합식료공장이 제일 뚜렷한 자기의 얼굴을 가지고 앞서나가며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는데 대하여 치하하시면서 우리 당의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당정책판철에서 선봉적 역할을 하고있는 공장로동계급의 백옥같은 총정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부무정신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 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경영활동을 잘 하고 질 좋은 식료품들을 더 많이 생산함으로써 인민의 사랑을 받는 공장,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공장의 영예를 더 높이 떨쳐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송도원종합식료공장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인민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끊임없는 애민헌신의 길을 이어가고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에 대한 뉘우치는 감사의 정에 부합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최고령도자동지의 대해같은 사랑이 인민들에게 더 많이, 더 빨리 가닿도록 하기 위하여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원산영예군인가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  
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  
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원  
산영예군인가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  
회 간부들인 한광상동  
지, 조용원동지가 동행하  
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현지에서 조선로동당  
강원도위원회 위원장



의 힘과 기술, 자재로  
번듯하게 꾸려놓고 생산  
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  
화하기 위하여 아글라글  
노력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  
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피와 땀을 서슴없  
이 바친 나라의 귀중한 보  
배들인 영예군인들을 아끼  
고 존대하며 잘 돌봐주어  
야 한다고 하시면서 도당  
위원회가 영예군인가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잘 도

박성남동지와 공장의 일군들이 맞  
이하였다.

오메에도 그리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뜻밖에 맞이한  
원산영예군인가방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가슴가슴은 한없는 영  
광과 행복으로 하이 세차게 설레이  
고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후대  
사랑, 미래사랑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강원도당위원회에서는 원산  
영예군인가방공장을 현대적으로 개  
건하고 학생가방생산을 정상화하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학

생기방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도  
블마다에 수십만개의 학생가방들을  
생산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가 원  
만히 갖추어진것만큼 이제는 가방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 불을 걸고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각

도의 가방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  
을 놓고 질평가를 특별히 하고 요구  
성을 높임으로써 온 나라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공급되는 가방의 질적수  
준이 꼭같이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  
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중앙에서 가방천과 차크, 레프, 합성

가죽, 금구류와 수지가공품을 비롯한  
가방생산원료와 자재들을 계획화하  
여 책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도들에  
꾸러진 가방공장에서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우리  
가 만든 질 좋은 학습장과 가방, 학  
용품, 교복을 안겨주어 어릴 때부  
터 우리의것을 소중히 여기고 사  
랑하는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도록  
하지는것이 우리 당의 의도이라고  
하시면서 전국의 가방공장 일군들

과 종업원들은 하나의 가방을 만  
들어도 자기 자식에게 만들어주는  
업원들이 짧은 기간에 공장을 자제

어머니심정으로 질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정성을 기울이고 심혈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거듭 부탁하시  
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종  
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선행시키고 생산공정마다에서  
기술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며 가방공장사이의 기술교류를 조  
직하여 서로 배우고 지혜를 합쳐가며  
가방의 질제고를 위한 투쟁에서 비약  
과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원산영예군인가방공장 일군들과 종  
업원들이 짧은 기간에 공장을 자제

와주라고, 그들이 후대들을 위한 보  
람차고 영예로운 사업에서 성실한 로  
동의 땀방울을 흘리며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원산영예군인가방공장의 전체 종업  
원들은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고귀한  
헌신과 뜨거운 사랑의 자욕을 세기시  
며 자기들의 일리를 찾아주시고 따듯  
이 고무격려하여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솟구  
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을 받들어 뱀시있고  
질 좋은 멋쟁이학생가방을 더 많이 생  
산할 불라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원산 영예군인가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 사 설

##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5돐 맞으며 영웅조선의 공민인 우리 인민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이 더욱 높아지고있는 속에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제5차 전국로병대회가 진행된다.

이번 대회에는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영예롭게 지켜내고 전승의 기적을 창조한 전국의 로병들이 참가하고있다.

조국성상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진 전국로병대회들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전쟁로병들을 민족의 장한 영웅,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 내세우고 값높은 삶을 인격추려는 우리 당의 숭고한 동지적사랑과 혁명적의의 결정제이다.

은 나라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 세대들은 지금 위대한 수령님의 명도따라 제2의 해방의 날, 승리의 7.27을 인양하고 한생 당과 조국을 받드는 제1선참호에서 전진하는 대오의 기수, 본보기가 되어온 훌륭한 혁명선배, 진정한 애국자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고있다.

제5차 전국로병대회는 위대한 수령님들을 높이 모시고 가장 치열한 반제혁명전쟁, 조국수호전에서 배승을 아로새겨온 주체조선의 영광스러운 승리전승을 만민하에 과시하는 경축대회, 전세대들이 발휘한 영웅적투쟁정신을 이어받아 위대한 인민의 나라를 세계가 우리러보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세울 위대한 인민의 혁명적기상을 떨치는 승리자들의 대회합으로 조국성상에 빛날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환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조국수호정신, 이것은 그 어떤 물리적힘에도 비할수 없는 최강의 힘이며 우리 세대들이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로병들에게서 넘겨받아야 할 가장 귀중한 유산입니다.》

이 땅에 전쟁의 포화가 멎은지도 65년 세월이 흘렀다.

산아에는 흙보다도 편피가 더 밝히고 모든것이 새터미로 되었던 전쟁의 참혹한

광경을 이제는 흔적조차 찾아볼수 없다. 하지만 숨이 진 전우들을 묻지도 못하고 머고인 가슴으로 전우와 작별하며 당과 조국을 위하여 전진로를 열어나가던 전승세대들의 그 넓은 오늘날도 살아있다.

전회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조국수호정신은 지난 65년간 백두의 혁명정신과 함께 세대와 세대를 이어 우리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게 무한대한 힘과 용기를 안겨온 고귀한 사상정신적재보이다. 전승신화상조자들의 불굴의 투쟁정신은 전후 영웅조선의 본래를 보여주기 위한 원리대고조의 거대한 불길로 아로르고 사회주의건설의 일대 전진기를 결친 속도전의 전군나팔소리도 이어졌다. 제국주의자들의 사상화약의 반공화국압살책동속에서 1950년대의 투쟁정신은 더욱 높이 발휘되어 우리 조국이 세계가 공인하는 진략국가로 급상승하는 위대한 승리가 이룩되었다.

조국의 운명이 판가리되는 시기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위대한 전승을 안아온 영웅들의 투쟁정신이 끝까지 계속발전되는 국가는 필승불패이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은 나라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인들과 청년학생들속에서는 전승세대의 영웅적투쟁정신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이 고조될것이며 우리 혁명의 전진은 더욱 가속화되게 될것이다.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은 자기것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수직, 기술적우세를 자랑하는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무찌른 정신력의 강자들이다.

청소환 우리 공화국과 인민에게 있어서 지난 조국해방전쟁은 가장 존엄한 시련이었고 사상경전의 싸움이었다.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이라고도 할수 있는 이 전쟁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세인의 예상을 뒤집어었고 자기의 조국을 굳건히 지켰으며 새로운 세계대전을 막아내었다.

이 기적적승리를 안아온 보검은 다름아닌 자기것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자기 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다. 우리 인민군인들과 인민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을 핵사상

처음으로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값높은 삶을 인겨는 진정한 인민의 조국은 무승마저 지겨야 할 삶의 보금자리였다. 항일의 전진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만 계시면 조선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석의 신념은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흔들림없이 최고사령부를 찾아 사선전투를 해치고 인력의 원수들의 온갖 책동속에서도 수령을 결사옹위하게 한 근본원천이었다.

우리 혁명은 필리 전진하고 시대적환경과 조건도 크게 변화되었다. 그러나 자기것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동력으로 조국을 수호하고 사회주의위업을 전진시켜야 한다는 혁명의 진리는 절대로 달라질수 없다. 오늘날 전승세대들이 자기 명도자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지력명령, 강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당의 구상과 결심을 빛나는 현실로 불피워나가는 진제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용모는 우리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기약해주고있다.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은 숭고한 미래관, 인생관을 지니고 조국보위정선에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 싸운 영웅전사들이다. 죽음보다 못한 식민지노예실에서 벗어난 처음으로 인간다운 행복한 삶을 맛보게 된 우리 공화국의 주인들에게 있어서 생명도, 명예의 희망도 귀중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후대들의 행복을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 싸웠다.

세계전쟁사가 일찍이 알지 못하는 애국적조국들이 발휘되고 수많은 영웅들이 배출되었다. 한몸이 총포탄이 되어 5만 대군을 3일간이나 막아낸 해안포대의 용사들도 있었고 육탄으로 적땅으로 격파한 세계최초의 뇌성군인도 있었다. 조국의 귀중한 재물을 목숨바쳐 지켜낸 평명한 로동자, 농민들과 원수들의 같은 고분속에서도 끝까지 조직의 비밀을 지킨 소년백병대원이 최후의 순간에 그려본것은 조선로동당의 항도이며 더욱 통성명언행 공화국의 찬란한 패업이었다.

자기 조국을 어떻게 사랑하여야 하는가를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주는 전승

세대는 오늘 당의 새로운 전략적도전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펼쳐나선 우리들이 적극 따라배워야 할 훌륭한 귀감이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설사 자신은 락을 보지 못하더라도 조국의 일날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한몸바칠 각오를 가지고 당이 맡겨온 초소에서 누가 알아주건말건 북부리 심실하게 일해나가는 기풍이 높이 발휘되고있는것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다.

전쟁로병들은 우리 조국을 세계만방에 떨치기 위하여 한생을 장거리 바쳐가는 열렬한 애국자, 참된 인간들이다.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은 전후에도 당의 부름따라 혁명의 불을 계속 피우며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쳤다. 전회의 그 정신, 그 기적으로 혁명적출파를 출파하며 하는 엄숙한 시련을 과감히 이겨내며 끝없는 공격전을 벌리고 세계전쟁사가 알지 못하는 기적을 창조한 배방과 본래로 사대주의, 기술신비주의와 같은 온갖 잡사상을 쓸어버리며 집총안이 내달려온 세대가 다름아닌 전승세대들이다.

전승에 기여한 공헌으로도 금방치에 남아 편안히 살수 있었지만 우리의 전쟁로병들은 한생을 전진한 혁명군인의 자세로 불간이 살아왔다. 존엄한 남애나 영웅의 남애나 당과 생사운명을 함께 하며 역세로 투쟁하여온 전쟁로병들의 품과 피상은 우리 조국을 한해일강국으로, 인민의 락원으로 일떠세우는것이였다. 당이 부르는 초소들에게 언제나 우리 로병들이 서있었으며 그들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세인을 정면시립 영웅적위훈을 세우고도 만족을 몰랐다.

위대한 태양조선은 세계의 전멸에 내세우려, 이것이 전쟁로병들이 우리의 세대에들에게 하는 당부이다. 백승의 전통을 바탕으로 이어온 로병들의 호소를 답받은 전우명령으로 받아안고 그들의 소원을 우리 세대에 반드시 현실로 불피우려는 우리 인민의 신념은 확고부동하다.

전승세대가 걸머지었던 중임, 그들이

그토록 바리번 애국념원을 빛나게 실현할 사명이 우리 세대들에게 지워져있다. 우리는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있을 막아서도 끄떡없이 당의 명도따라 1950년대의 투쟁정신으로 이 하늘아래, 이 땅우에 반드시 세계가 우리러보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워야 한다.

전사회의적으로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의 정신세계를 따라배우기 위한 투쟁을 드세 차게 벌려야 한다.

위대한 전승세대의 투쟁정신에서 근본력은 수령결사옹위정신이다. 불타는 전호가에서 최고사령부를 그리며 무른 혁명가요함과 결사전을 앞두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삼가 올린 맹세불굴, 믿음은 당총들과 총탄에 정기는 기복물에는 수령이 있고서야 조국도 있고 가정도 있다는 영웅전사들의 숭고한 사상정신세계가 뜨겁게 숨어있다.

조선혁명에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리는 영광스러운 혁명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는 주체조선의 강대국의 상징이시며 최후승리의 기치이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전승세대가 지니었던 투철한 혁명적수령관을 배에 쏘아막고 삶의 순간순간을 수령결사옹위로 불내어나가야 한다. 누구나 당중앙의 권리와 인성을 보장하는 사업에서는 전안민중의 단 한번의 실수도 풀려야 하며 오직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는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 당중앙과 당조직과 호흡을 같이하고 운명을 함께 하는 순간엔 총정은 당의 새로운 전략적도전과 방면관점에서 높은 사업실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인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전의 원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 대한 참관과 로병들과의 상봉모임, 전시기요보급과 용원모임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식과 방법의 사상사업을 통하여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일렬한 애국심, 투철한 반제계급의식을 심어주어야 한

다. 특히 청년들속에 조국수호정신을 심어주기 위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그들이 전승세대처럼 조국의 부름앞에 한몸 서슴없이 내대며 세상에 자랑높은 청년강국의 주인공, 청년전위의 용맹과 기상을 남김없이 떨치도록 하여야 한다.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전쟁로병들을 존대하고 위배주는 기풍을 더욱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위대한 조국방위전과 거창한 사회주의건설에서 영웅적위훈을 세운 전쟁로병들을 혁명선배로 존대하고 진정을 다하여 돌보아주어야 한다는것이 우리 당의 뜻이다. 전쟁로병들을 사회적으로 적극 내세우고 우대하며 그들의 사업과 생활에 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전쟁로병들은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애국충정의 불을 계속 피워나가야 한다.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육체적쇠하는 있을수 있어도 정신적쇠하는 있을수 없다. 전쟁로병들은 언제나 조국해방전쟁참전지라는 영예감을 가지고 도망직장하면서 당과 조국을 받들어 혁명가가 한생을 어떻게 살며 빛내어야 하는가를 실천적모범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전쟁과 같은 엄숙한 시련을 겪어보지 못하고 행복만을 누려온 새 세대들이 혁명의 주역은 이루고있는 오늘 그들에게 고귀한 사상정신적재부를 불려주는것은 전쟁로병들의 숭고한 혁명적의무이다. 전쟁로병들은 피흘리며 쓰러진 전우들의 간곡한 당부를 잊지 말고 최후승리에 백옥같은 총정의 일면단심과 죽어도 버리지 않는 혁명신념, 불굴의 조국수호정신을 미칠기로 넘겨주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명도따라 승리적으로 개척되고 전진하여온 우리 혁명은 오늘 위대한 당의 명도덕에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다. 불타는 고지의 전호가에서, 허리머를 조이며 창조와 건설의 마지막소리를 높이 울리던 전투장마다에서 그려보던 최후승리의 날이 가까와오고있다.

위대한 김정은시대는 전승세대의 담원이 빛나게 실현되는 승리와 번영의 시대로 될것이다.



